

대학교육이 행복한 생활을 위한 황금 열쇠인가?¹⁾

이정규 | 전 캐나다 센트랄칼리지 학장

I. 서론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이를 위한 추구가 돈, 권력, 명예, 명상, 종교 등의 도구나 수단에 의해서든, 그리고 이를 위한 삶의 양식이 물질주의, 금전만능주의, 쾌락주의(hedonism, Epicureanism)에 바탕을 둔 몰욕, 소비, 성욕 등으로 표출되든, 이와 달리, 정신주의(spiritualism), 금욕주의(asceticism, Stoicism), 신비주의(mysticism)에 기초한 신앙, 이념, 수행 등으로 나타나든, 삶의 공통적인 목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강과 재화가 필수적 요소이며, 종교, 예술, 운동, 음악, 오락 등은 이러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촉진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의 정도와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며, 행복한 삶의 기준과 추구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이는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사람마다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행복에 대한 질과 양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종, 국가, 종교, 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행복은 가까이에

리에도 있을 수 있고, 느낄 수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내재적일 수도 외재적일 수도 있고, 볼 수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만지지 못할 수도 있고, 측정할 수도 못할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이상적일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못할 수도 있고, 실제적일 수도 추상적일 수도 있고, 형이하적일 수도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가정할 때,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고의 선이요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일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한편으로 국가의 복리증진을 위해 복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행복’을 연구하고 있으며(EFA Global Monitoring Report: UNESCO, EuroQOL Survey: <http://www.euroqol.org/>, Gross National Happiness, Happy Planet Index: NEF, Planning Commission of Bhutan, Quality of Life Index: <http://www.isoqol.org/>, Quality of Living Survey: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The World Factbook: CIA,

1) 본 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저자의 고등교육 관련 칼럼을 모아 올해(2008년 6월) 디지털교보문고에서 발간한 E-Book,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이정규 박사 칼럼 모음집)에 게재된 저자의 몇몇 칼럼(pp. 14-15; pp. 18-19; pp. 45-46; pp. 147-150)을 전제 혹은 부분 인용하고 이를 대폭 증보하여 Position Paper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The Oxford Happiness Inventory, UN Human Development Index, Vanderford-Riley Well-Being Schedule, and World Database of Happiness),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육의 복지화 추구 정책에 증진하고 있다. 또한, 철학, 종교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학 분야의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몇몇 서구학자를 중심으로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계화 및 정보화 흐름에 편승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경제논리에 따라 인간자본론을 추종하며 인적자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교육은 국가 정책에 편승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화 및 전문화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 추구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등한시한 채 실용주의 기치하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이 연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며, 과연 대학교육이 행복을 위한 최적의 열쇠인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여러 필요 조건 내지 요소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교육에 한정하고, 고등교육 특히, 한국 대학교육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가?

둘째, 대학, 행복을 위한 황금 열쇠인가?

이 연구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석명하기 위해 문헌위주의 내용분석방법과 상호문화적 접근법을 통한 추론적 기술방법을 이용하여 논의할 것이다.

II. 대학교육과 행복

대학교육과 행복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저자는 먼저 지식과 교육의 개념을 간략히 기술하고, 다음으로 대학의 기능을 살펴본 후, 끝으로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1. 지식과 교육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동서양의 어원에서 미루어 볼 때, 지식은 교육뿐만 아니라 물질적 및 정신적 세계로부터의 경험, 분별, 지각, 관찰, 숙고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된 몇 가지 용어에서도 그러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서 예를 들자면, 인간의 정의, 미, 그리고 선에 관련된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를 함의하고 있는 프로네시스(phronesis), 철학적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sophia), 물질이나 기술 및 경험과 연관된 이론적 지식을 표방하는 에피스테메(episteme), 사회와 국가적 공동체 내에서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정치적 지혜를 나타내는 폴리티케(politike), 예술이나 기술 및 기능적 지식을 지칭하는 테크네(techne)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상과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혜의 개념을 함의하고 있는 지식은 로마시대에 이르러선 더욱 다양하게 표현되어, 지식과 기술을 지칭하는 시엔티아(scientia), 지력, 지각, 이념의 뜻을 포괄하는 인텔레겐티아(intellegentia), 경험적 지식을 나타내는 엑스페리엔티아(experientia) 등으로 표현된다. 특히 사이엔티아는 다분히 기독교적 사유와 결합되어 여러 가지 용어로 분류된다. 헬라 시대에 지식의 개념이 정신과 물질적 세계에 머물렀다면, 로마시대에 지식의 개념은 신적 및 인간적 세계를 포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도 지식은 교육뿐만 아니라 물질적 및 정신적 세계로부터의 경험, 분별, 지각, 숙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식은 앎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知)와 천부적인 슬기 혹은 지혜를 나타내는 지(智)로 구분되어, 전자는 앎과 가르침(敎) 혹은 배움(學)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학문적 덕목으로 본 반면, 후자는 인(仁), 의(義), 예(禮)와 함께 실행적 덕목으로 보았다. “대학(大學)”에서 나타난 명명덕(明明德)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학문적 덕목인 지(知)를 통하여 도덕적 경지인 수기(修己)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知)는 배움(學)과 가르침(敎)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논어(論語)”에서 나타난 부단히 배우고(學) 익히는(習) 것은 교육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고전에서 가르침(敎)은 여러 가지 한자어와 결합되어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교학(敎學)에 근원을 두고 있는 동양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대 희랍어의 파이데이아(paideia)란 용어도 교학, 훈련, 문화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의미는 라틴어에서는 강의와 배움을 통하여 인간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에루디티오(eruditio), 강의와 배움을 통하여 지식을 익히는 과정을 나타내는 독트리나(doctrina), 관습, 교육, 합의의 개념을 지닌 인스티튜티오(institutio)란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뜻을 나타내는 이러한 용어는 교육적 절차와 과정 외에 윤리, 사회, 정치적인 제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동서양의 고전과 용어에서 함의하고 있는 개념을 종합하자면, 교육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통로이며 지식에 대한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필요로 하는 지식은 교육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인 총체적 현상을 학습, 경험, 분별, 지각, 관찰, 숙고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교육이 인간의 잠재된 가능성을 배움(學)을 통하여 끌어내는 행위라고 가정한다면, 지식은 평생 동안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소우주적인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세계의 총합체’이다.

2. 대학의 기능

어원적으로 영어에서 “university”라는 용어는 협동이나 조합의 뜻을 담은 라틴어인 “universitas”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universitas”라는 용어는 보편적(universale)이며 일반적(generale)인 의미 외에 조직체나 공동체의 의미를 지닌 “communica”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Laurie, 1912). Eric Ashby(1904-1992)의 주장에 의하면,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발원한 후 수 세기 동안 대학은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육성, 지도자 양성소, 학문 연구, 전문 기술사 양성 기능이다. 수 세기 동안 서구에서 대학교육의 목적은 주로 지식의 보존, 전달 및 진보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university”라는 용어는 중세 당시 학위를 부여하는 권력을 가진 조합체의 개념인 “universitas doctorum et scholarium”과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을 탈피하여 다양화 내지 다변화를 추구하는 multiuniversity, 국제화 내지 세계화를 추구하는 global university,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virtual university, mega-university, on-line university, e-multicampus, 학문의 실용화, 대학의 기업화 및 자본주의화를 주창하는 entrepreneurial university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주요 기능은 가르침, 연구, 사회봉사로 전환되었으며, 대학의 목적도 지식의 보존, 전달, 진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건설 및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한 개인과 사회 및 국가가 바라는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다양화 되었다.

3.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 교육적 관점에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가정할 때, 인간은 경험적 실재와 논리적 사유를 통해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고자 하거나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지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존재라고 귀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진리 추구의 본성에 따라 사람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며,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숭고하고 존엄한 지고의 가치인 행복을 추구하고 느낄 수 있거나 향유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서고금을 통하여 수 많은 현학자들이 이에 대해 탐구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주장해왔지만 아직도 아무도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고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원리나 이론을 밝혀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정의와 실제 조차 인종, 종교, 문화, 학문적 배경에 따라 각자 다르게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과 역사적 배경 내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행복에 대한 본질과 특성이 논리적 사유나 과학적 탐구로 규명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내지 초월적인 면이 내재된 데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어딘가에 실재하며, 인류의 문화사에서 고금을 통하여 현실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임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어쩌면 인생에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을 터득하고 익히는 것 또한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최적의 한 수단이며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자 방편일지 모른다. 특히, 대학교육을 통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은 자아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성공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획득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아 실현을 이룸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식과 교육은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자 결정 요인이라 추론할 수 있다.

III.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교육의 목적이 삶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

에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외관상론 목적론적 색채를 나타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존재론적인 철학적 함의와 실용적인 형이하적 실재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목적론적이라 함은 이 질문이 '무엇을 위해'라는 목적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학문에 대한 목적이 사람에게 따라 각자 다른 색조를 띠고 있겠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바라는 바는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었다. 인간은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은 유덕한 생활을 신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매한 덕성은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가꾸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저서인 니코마케안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완전하면서도 자족한 것' 내지 '축복받은 것'으로서 '지고(至高)의 선(善)'이라 간주하였다. 전자를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즉 유다이모니아(eudaimonia)라고 말하고 후자를 절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으로서의 행복'인 마카리오스(makarios)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행복이 '최상의 것'이고, 인간은 '최상의 것'을 바란다면, 행복은 곧 인간이 바라는 '최상의 것'이라는 논법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존재론적이라 함은 무엇을 행하는 나(自我)라는 인격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케안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 행복을 '완전한 덕(德)을 준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듯이, 배우는 사람은 학문을 통하여 자신을 고매한 덕성을 지닌 인격자로 체화시킬 수 있어야만 '지고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 순자(荀子)도 자아수양을 겸한 예(禮)를 익힘으로써 인간의 미숙하고 사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현자(賢者)의 가르침을 학습할 것을 강조하였다. 배움을 통하여 덕성이

고매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형이하적 실제성이라 함은 배움을 통하여 행복과 덕을 추구하기 위한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으로서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돈과 권력,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 내지 실용적인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순자(荀子)에 의하면 사람은 욕망과 함께 태어난다고 한다. 욕망은 물질적인 소유물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욕망은 물질적 만족을 성취하기 위한 원천적인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은 인간의 물질적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 도구이자 물질적 욕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도덕적 매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실용성을 추구하고 교양을 갖추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부한다고 주장한다.

IV. 대학, 행복을 위한 황금 열쇠인가?

대학은 과연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한 황금 열쇠인가? 이 연구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순기능적 내지 긍정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관점에서, 대학은 개인에게 실용성 추구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보상과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여 교양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서구 학자들과 연구기관의 몇몇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대학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보다 소득이나 지위, 삶의 질과 태도에 있어서 훨씬 양호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신의 건강 그리고 자녀의 삶의 질과 교육의 성과에 있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용성 추구하고 실질적인 혜택 외에도, 대학교육은 개인에게 교양과 덕성 함양을 통하여 교양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배움’(學)을 개인의 덕성과 인성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도구로써 간주하고 있으며 ‘앎’(知)을 수기(修己)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자 도덕적 이상인인 ‘성인 군자’(聖人 君子)가 되기 위한 필수 덕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정치학”(The Politics)에서 ‘파이데이아(paideia)’를 덕성의 실행을 위한 도구로 보면서, 교육이 선(善)과 미덕의 발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천성(thesis), 습관(ethos), 이성(logos)-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 조화를 이룰 때 ‘고매한 인물’(kalos kagathos), 즉 ‘신사’(紳士)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서양의 두 위대한 철학자들이 교육을 교양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덕성과 교양을 겸비한 교양인이 될 수 있는 빈번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여러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학교육은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와 복지를 증진하고 오락활동을 촉진한다.

한국에서도 2002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에 있어서 학력과 학벌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일반적으로 저학력자는 저소득층,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저임금 직업, 도시 빈민지역 내지 시골 지역과 연관이 있는 반면, 고학력자는 고소득층,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는 고임금 직업, 대도시 상류층 내지 중산층 거주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문화사의 견지에서, 왕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학문은 입신양명의 도구로 인지되어 관료 학자 양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재

화를 획득하는 수단이었으며, 교육은 이를 위한 통로였다. 물론, 명분상으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인격 수양이나 학문 함양이 강조되었지만, 실제로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관료 엘리트를 산출하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대학 교육 이수 이상의 고학력은 사회계층화와 직업 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 권력과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 도구이자 수단이 되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연구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대학교육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대학교육을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대학교육의 획기적인 확대를 노력해왔다. 그 결과 불과 반 세기만에 고등교육 확대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가로서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OECD에서 발행된 자료(OECD in Figure 2007 Edition)에 의하면, 25-34세 인구 대비 대학 진학률은 캐나다, 일본에 이어 3위를 나타내고 있고, 25-34세 인구 대비 대학교육 이수율에 있어서 97%에 이르러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의 국부(國富)는 아프가니스탄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국민 1인당 총소득이 미화 17,690 달러에 이르고 국민총생산은 미화 약 8,88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고소득 선진공업국가 그룹과 OECD고소득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World Bank(2008)의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교육과 국가 경제 발전의 성공과 더불어, 이제 한국은 산업화된 신생 경제국가 혹은 “지식 경제 국가”의 하나로서 국가경제발전 경험과 교훈을 여러 개발도상국

들과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관점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은 개인에게는 실용 추구하고 교양인으로서 덕성 함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주며, 사회와 국가에겐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을 가져다 주는 주요 결정 요인이다. 대학교육의 순기능적 및 긍정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학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지 그리고 국가의 번영이라는 삼중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V. 결 론

지금까지 저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서술적 내용 분석방법 및 상호문화적 접근법을 통한 추론적 기술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대학교육과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식과 교육의 개념을 기술하고, 대학의 기능을 살펴본 후, 행복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를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인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가에 대해 세 가지 관점, 즉 목적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은 과연 행복을 위한 황금 열쇠인가에 대해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긍정적 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역기능적 내지 부정적인 면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학문을 통한 입신양명의 가치관은 교육열을 고취시켜 급속한 고등교육의 팽창과 선진공업국으로서의 국가경제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대학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학력/학벌사회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켜 학력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교육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물질적으로 국가경제발전으로 인해 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요롭게 되었지만 과연 삶의 질 내지는 행복한 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팽창에 걸맞게 한

국이 복지사회/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성공 내지 출세를 위해 일류대학의 졸업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에 대한 도덕성, 책무성, 사회공헌도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학력과 학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표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학교육 또한 개인의 덕성 함양과 행복 추구는 외면한 채 지식기반 경제 혹은 정보통신기술 시대에 따라 개인은 실용성 추구에만 급급하고, 사회와 국가는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교육을 인간자본론의 실천 도구로 간주한 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사회화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나라만이 과연 만민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대학교육이 진실로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미래의 대학이 개인의 행복, 사회의 복지 향상,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행복대학으로 지향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미래 연구로서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다루어질 것을 권고한다.

끝으로, 오늘날 대학이 공리주의의 행복의 원칙-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초하여 개인의 실용성 추구하고 사회의 물질적 번영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상 효과와 더불어,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덕성 함양과 복지사회 및 풍요롭고 평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행복추구대학” 혹은 “행복연구대학”으로 거듭나길 제안한다.

참 · 고 · 문 · 헌

- Barker, E. (trans.) (1946). *The Politics of Aristotle*, Oxford: The Clarendon Press.
- Cheng, C. (1991). *New Dimensions of Confucian and Neo-Confucian Philosoph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 York Press.
- Cohn, E. and Geske, T. G.. (1986). *Benefit-Cost Analysis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Paper prepared for the Seventh Annual Yearbook of the American Education Finance Association.
- Davis, R. and McSwain, C. (2007). *College Access for the Working Poo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
- Frey, B. S. and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tog, J. and Oosterbeek, H.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 of Education Review*, 17 (3), pp. 245-56.
- Jowett, B. (trans.) (1991). 'The Dialogues of Plato',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6*, Plato,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Laurie, S. S. (1912). *Rise and Early Constitution of Universities with a Survey of Mediaeval Education*, New York and London: D. Appleton and Company.
- Lee, J. K. (2002). *Korean Higher Education: A Confucian Perspective*. Seoul: Edison, NJ: Jimoondang International.
- Legge, J. (trans.) (1971). *Confucius: Confucian Analects, The Great Learning and The Doctrine of the Mea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Leslie, L. and Brinkman, P. T. (1993). *The Economic Value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Macmillan.
- Malden, H. (1835). *On the Origin of Universities and Academical Degrees*, London: Printed for John Taylor.
- Miller, P. W. and Tcha, M. (2005). 'Happiness in University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Education*, 4 (1), pp. 20-45.
- Millet, J. D. (1962). *The Academic Community: An Essay on Organiza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2007*, Paris: OECD.
- Ross, D. (trans.) (1988).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ltz, T. W. (197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Role of Education and of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 United States (US) Census Bureau (2007). *United States Census 2000*, Washington, D.C.: <http://factfinder.census.gov/>
- Wieruszowski, H. (1966). *The Medieval University: Masters, Students, and Learning*, Princeton: Van Nostrand.
- World Bank (2008). <http://www.worldbank.org/kr>

- Yanase, M. (ed.) (1989). The Future Image of Sophia University: Looking Towards the 21st Century, Tokyo: Sophia University.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서울: 집문당.
- 이정규 (2008).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이정규박사 칼럼 모음집: E-Book). 서울: 디지털교보문고.
- 이정규 & 홍영란 (2002). 한국사회에서의 학력의 가치 변화 연구 (RR 2002-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필·자·소·개

이정규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고등교육행정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캐나다 센트랄 칼리지 학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대학행정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국제학술지 Radical Pedagogy와 Globalization and Health 평가위원, 한국대학신문 전문위원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다. 필자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인정 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속하는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America 2006-2007년판(61st Edition), 영국 캠브리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서 발행하는 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 2008년판, 그리고 미국 ABI(2008년판)의 “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에 등재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A Confucian Perspective」,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 및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